광주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111곳 1256만㎡

도로·공원 등 사업비 4조4천억원 필요
광주시 '집행계획'…해제엔 부정적 의견
부지 재산권 제한 반발 민원 계속될 듯

광주에서 도로나 공원, 학교 등 도시기능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이 지나도록 애초 목적대로 조성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시설'이 110곳을 넘어서면서 장기간 개인 재산권을 제한하는데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 장기 미집행 시설을 모두 애초 계획과 용도에 맞춰 시행하려면 무려 4조3900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가 필요한데다, 이들 필수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할 경우 도시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장애가 될 수밖에 없어 광주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29일 광주시가 광주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총 111곳으로, 전체 면적은 1256만1701㎡에 필요한 사업비는 4조387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광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구분	개소수	면적(㎡)	소요사업비
도로	56	2,055,878	1조 4,594억원
광장	5	42,454	335억원
공원	25	9,724,893	2조 6,718억원
유원지	1	326,531	824억원
녹지	8	371,899	1,301억원
운동장	1	9,087	34억원
학교	15	30,959	70억원
총계	111	12,561,701	4조 3,876억원

이 가운데 도로는 56곳에 면적이 205만5878㎡에 이르며, 이들 56곳을 모두 애초 계획처럼 도로로 개설하기 위해선 1조4594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원은 25곳에 972만4893㎡로, 필요 사업비는 2조 6718억 원에 달했다. 녹지는 6곳 37만1899㎡에 1301억 원, 그리고 학교는 15곳 3만959㎡에 70억 원이 각각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이들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및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111곳 모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중이거나,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는 이유를 들어 도시계획시설로 존치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광주시가 이 같은 '현황 및 집행계획(안)'을 마련한 것은, 정부가 지난해 4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보고 받은 시의회는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해제를 권고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광주시가 이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재산권 제한'에 따른 반발 등 민원도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열악한 광주시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한꺼번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차근차근 사업을 시행하되, 중앙정부에서도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시 상반기 수출 79억달러
사상최대…부산보다 13억달러 많아

최근 광주지역 수출실적이 뚜렷한 수직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올 상반기 수출실적도 사상 최대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선5기 3년째인 지난 6월 말 수출실적은 2010년 6월 말의 52억 달러보다 52.1% 증가한 79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서도 13.1%가 증가한 수치로, 전국 특별·광역시 가운데 전년 동월과 동 기간 대비 증가율이 3개월 연속 1위를 기록했다. 또, 지역별로는 대전의 19억 달러나 대구의 34억 달러를 2~4배 초과하는 금액이며 부산의 65억 달러보다도 13억 달러가 앞선 수치다. 특히, 총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 역시 광주는 누계가 55억원에 이르고, 전년 동월 수출실적과 비교하더라도 7.9%의 성장세를 기록하는 등 특별·광역시 중 유일한 수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수출 진흥정책을 통해 특별·광역시 중에서 수출신장률은 물론, 무역수지 규모가 가장 큰 수출주도형 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다"며 "하반기의 긍정적인 경제여건과 광주지역의 수출전망 추이에 비춰볼 때 올해 수출목표액 160억 달러 달성은 충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대각선으로 주차한 저 차 불법이죠?
지체없이 달려가 와이퍼에 안내문 부착

불법 주·정차단속 청소년 체험단원들이 29일 광주시 북구 임동 한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에 불법·주차 금지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

북구 '청소년 불법주정차 체험단' 단속 현장

"여기에 차를 주차하면 안 돼요…. 우리 엄마·아빠도 안되죠."

광주시 북구가 '불법 주·정차단속 청소년체험단' 운영에 나선 지난 29일 오후 2시 광주시 북구 우산동 우산중학교 인근 왕복 4차선 도로. 갓길엔 불법 주·정차된 차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었다. 여중생으로 구성된 청소년체험단이 불법 주·정차 금지 안내문을 승용차 앞유리에 설치된 와이퍼에 끼워넣었다.

문산중 1년 이유랴(13)양이 "대각선으로 주차한 저 차도 불법 주차한 차에요?"라고 묻자, 북구청 교통지도팀 배갑열 계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양은 지체 없이 달려가 불법 주·정차 금지 안내문을 와이퍼에 끼워넣은 뒤 "평소 등·하굣길에 저런 차들을 많이 봤는데, 불법 주정차량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3시 북구 임동 임동 주민센터 앞길.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에 탄 경신중 2년 박정연(14)양 등 여중생 2명이 차 안에 설치된 모니터를 신기한 듯 바라봤다. 외부 카메라와 연결된 이 모니터엔 불법 주·정차한 차량 번호판이 죽 나열돼 있었다. 단속 차량이 같은 구간을 서너 차례 반복해서 돈 뒤에도 제자리에서 이동하지 않은 불법 주·정차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으로 자동 선정되는 시스템으로, 모니터엔 '1차·2차·3차 적발'이라는 문구가 표시됐다. 단속차량은 불법 주·정차 단속 중임을 알리는 방송도 병행했다. 하지만, 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운전자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여중생 7명 참여
홍보·계도·단속활동
13대에 과태료 부과

이날 청소년체험단 7명은 단속 체험 직전 배 계장의 지도 아래 30분간 불법 주·정차단속에 대한 교육을 받은 뒤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인 우산중학교·광주역·경신여중·용봉지구 등 인근 도로에서 홍보·계도·단속활동을 벌였다.

이들은 도보 단속과 차량단속팀 등 두 팀으로 나눠 단속활동에 나서 모두 13대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불법 주·정차한 차량 300대에 대해선 불법 주·정차 금지 안내문을 부착했다.

북구가 지난 23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체험단 참가자 수는 모두 40명이다. 북구는 다음달 16일까지 청소년 체험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양은 "한 달 용돈이 3만 원인데, 이날 단속하면서 불법주차과태료가 4만 원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아빠가 불법 주차를 하지 않도록 말씀을 잘 드려야겠다"고 말했다.

장천석 북구청 교통지도과장은 "여름방학을 맞아 중·고등학생에게 기초질서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 청소년체험단을 운영하게 됐다"며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시 전국 최초 광역지리지 발간
내년 2월까지…시대별 모습·도시 변화상 담아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광역지리지를 발간한다. 지리지는 우리 지역의 땅과 그 위에서 펼쳐지는 지역민의 삶을 분석해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시대별 모습과 도시의 변화상을 파악할 수 있는 종합기록서다.

광주시는 29일, 광주를 중심으로 한 광역지리지를 자체적으로 발간키로 했으며 오는 9월까지 자료조사를 거쳐 내년 2월까지 발간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지리지 발간 기본계획'과 연계, 국고보조금 7500만원을 지원받아 총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지리지는 광주지역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반영할 수 있는 고유항목과 자연, 경제, 사회·문화 등 3부 82개 항의 공통항목으로 구성된다. 전라남·북도와 제주도를 포함한 기존의 호남편 지역지리지에서 탈피해 광주 중심의 광역지리지로 바뀌게 되며, 스토리텔링 기법을 반영한 각종 도표와 그림, 사진, 통계 등 시각적 요소를 적극 활용해 제작된다.

광주시는 발간된 광주시 지리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각급 도서관 등에 배포하는 한편 국토지리정보원의 디지털지리지시스템을 통해 주제별 정보와 현안 이슈 등 다양한 지리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 중심의 지리지가 발간되면 도시정책 및 계획수립, 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 도시발전 및 활용방향 제시와 도시 위상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시 공·폐가 매입 주민 편익공간 조성

광주시가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사용되는 등 주거환경을 악화시켜 온 공·폐가를 매입, 개·보수한 후 주민 편익공간으로 제공하는 도심재생 시범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

올해는 4곳이 시범사업지로 선정됐으며 ▲동구 산수동의 공·폐가는 체험농장 및 소규모 체육시설이 들어서는 녹지공간으로 ▲남구 노대동은 청소년 인문교육장이 들어서는 노대실 솔숲학당으로 각각 조성된다. 또, ▲북구 두암동의 군왕봉 참판마을에는 창조마을과 연계한 커뮤니티센터가 조성되며 ▲광산구 신촌동 공·폐가는 여자경로당 및 커뮤니티센터로 바뀌게 된다.

한편, 광주지역 공·폐가는 지난 6월 현재 2374동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공·폐가 258동을 철거했지만, 사유재산이라는 특성상 정비와 관리,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도 공·폐가 95동을 철거하고 4동을 매입, 정비하기 위해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WWW.MODONG.CO.KR
" 국내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
문의전화 : 010-9199-7000 010-7171-5382
건축, 토목 공사 자재공급 안내
원 석
A급 재당 6,000원
B급 재당 5,500원
C급 재당 4,500원
전 석
A급 : 25t 기준 320,000원
B급 : 25t 기준 230,000원
사석 : 25t 기준 190,000원
판 재

구분	반제품	규 격	완제품
생산품목	무 판 재 16,000원 부터 30T (M²/당)	~ 800 폭 3만 M³ 이상 항시보유	버 너 지석연마 잔 다 듬 혹 두 기 사 구 석 경 계 석

골 재
보조기층 : 현장직구입
자 갈 : 현장직구입
개비 온 : m³당 12,000원
모 래 : m³당 12,000원
견치석
공사용 1,300원(개당)
묘축용 1,300원(개당)
기 타
◎ 자연 조경석 생산
◎ 징검다리 주문생산
(010-5388-3666)
※ 전 품목 현장 상차도기준
등 록 제 0597579 호
상표등록증 상표권자 강종희
상표를 사용할 상품 및 구분 2004년 10월 29일
제 19 류
규석등 9건
특 허 청
(채석장자재) 모동기업사 주소 : (670-853) 경남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산 6-1 전화 : 055) 944 - 5382 / FAX : 055) 944 - 5381 H·P : 010-7171-5382 modongcokr@nate.com
(판재공장) 모동석재(주) 주소 : 경남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105-15 전화 : 055) 943 - 8946 / FAX : 055) 943 - 8947 H·P : 010 - 9171 - 2117 / 010 - 8260 - 0135